

웰빙 · 탈도시화 시대

도시민의 “친농 · 귀농 · 취농교육” 시대 열자

임갑목 부장
(본회 연수지도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갈파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언급한 것은 정신적인 인간관계와 교류를 강조한 말이 아닌가 싶다. 즉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류를 통하여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또한 배우고 가르치는 모든 인간생활사에 대한 단적인 표현일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우고 느끼며 깨우침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학교교육법의 평생교육법을 바탕으로 정부지원, 시설, 임무, 운영 등에 대한 규정으로 평생교육의 기회균등 보장,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평생교육으로서 농업교육도 중등학교나 대학교 등의 학교교육을 제외한 농업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서 평생교육의 형태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농업 교육하면 농민이나 농업관련 종사자 혹은 관련기관의 공무원교육이 대부분이며 우리 농업인 대부분도 그렇게 인식하여 왔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1965년 농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11명의 농민교육을 시작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십만명의 농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업교육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70년대와 '80년대 교육장이 비좁고 숙소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농민들이 참가하던 영농교육은 산업화와 함께 위축된 농업으로 인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로 인하여 점차 한계 상황에 이르러 참가자수가 점차 줄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이 존재하는 한 농업교육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회 정장섭 고문은 지난 7월말 일본 농업관계기관의 초청으로 방일 기간에 전국농업기술자협회와 오랜 기간 유대 관계를 맺고 협회에서 파견한 연수생을 교육시켰던 이바라 기현에 있는 일본농업실천학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일본농업실천학원은 80년 역사의 농업후계인력육성기관으로 지금은 20대 학생은 얼마 되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불경기로 귀농하려는 30대 이상의 고령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하겠다.

이제 우리농업도 탈농시대를 지나 귀농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본다. 특히 사오정, 오륙도라 하는 유행어가 생겨날 만큼 조기 은퇴직자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디에도 이들을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별로 없다고 본다. 특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평균수명이 80세 가까이 연장되고 건강한 조기 은퇴직자에게 일할 수 있는 20~30년동안을 할 일 없이 무위도식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손해일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농촌으로 돌아갈수 있는 길을 용이하게 열어 준다면 인구와 경제의 도시집중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해결과 함께 요즘 정부에서 주장하는 균형발전은 물론 사람구경이 힘들어지는 농촌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농업교육도 농민, 농업, 농촌에 대한 교육위주에서 벗어나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친농, 취농, 귀농교육을 중시하고 병행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 물론 일부

단체나 기관에서 귀농관련 교육을 하고 있고 전국농업기술자 협회도 IMF시기에 귀농교육을 몇 번 시행하였지만 향후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도시민에 대한 농업교육을 확대되어야 함은 물론 행정·재정적인 정부의 지원정책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평소에 느끼고 생각했던 도시민 농업교육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친농교육”을 실시하자. 요즘은 도시근교에 주말농장이 성시를 이루고 있다. 본회에서도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농장 회원 중 장·노년층 이상도 많지만 20-30대 젊은 청장년과 함께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이 많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 농업농촌의 소중함과 작물재배를 통한 수확의 보람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정서의 순화와 함께 건강을 위한 여가생활에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하여 농촌체험, 농촌관광, 주말 농장등의 정부 지원정책이 늘어나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기관이나 사업자는 관심을 갖고 도시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우리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험이나 교과과정을 통하여 형식적이 아닌 농업의 참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일선 학교는 학생의 올바른 농업교육을 위하여 농업 관계기관이나 농업인과 유대를 강화하고 교육계획을 함께 세우며 논의하고 상호역할을 다하여 자라나는 세대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귀농교육”을 실시하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인구가 8%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10%를 넘어설 전망이다. 그리고 정보화시대 조기 은퇴직자는 증가일로에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들에게 노인에게는 노후 복지차원의 농촌생활을 하도록 하고 은퇴직자에게는 취미농업, 건강농업, 여가농업에 관심을 갖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농촌생활, 농사기술, 각종 농업관련 제도등에 대한 세심한 사전교육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귀농 지역을 알아 볼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겠다.

셋째 “취농교육”을 실시하자.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막막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반면 농촌은 인력난으로 도시 사람들의 손을 빌려 일을 하고 있다. 물론 오랫동안 농촌에서 일하던 사람도 상업농하기가 어려운데 귀농자가 농사를 한다면 더욱 어려울 것이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도시의 새로운 사고를 농업에 적용하고 노력한다면 도시에서 노력했을때 이룰수 있는 가능성만큼 농촌에도 그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별도의 치밀한 농업기술과 경영에 대한 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분야별로 전업농가에 가서 일정기간 실습을 겸한 연수를 받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제 우리농업은 먹거리만을 생산하는 농산물 생산도구 이상의 농촌문화 농촌공간의 필요성과 중요성의 인식이 증대되고 특히 잘먹고 잘사는 웰빙바람이 불고 있는 시대에 걸맞게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의 재조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농업인들도 도시민이 찾아오는 농업으로 변신하기 위하여 지역 곳곳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농업교육도 이제는 농민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도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민이 농업과 가까워지는 “친농교육”, 건강하고 여가를 즐기며 자급자족을 위한 “귀농교육”, 마지막으로 도시 실직자를 위한 직업전환 “취농교육”등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유형의 농업교육을 체계적이고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정부기관이나 각 자치단체와 농업단체는 시대의 흐름을 인식한 사고의 전환과 함께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내용, 새로운 형태의 농업교육을 개발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라 하겠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도시민에게 농업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 농촌정착이 늘어난다면 결코 지금처럼 농촌은 힘들고 돈도 못벌고 못사는 곳으로 치부되는 시대는 끝이 날 것이다. 그리고 유럽처럼 큰 소득은 못되어도 자연과 함께 건강을 지키며 보람찬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도시민이 선망하는 농촌생활이 머지 않아 도래할 것을 의심치 않는다.